수년째 악취유발업체 주민 고통 나몰라라

여수화양농공단지 (주)SFC 행태에 지역민 분노

배출 기준 6.7배 초과 불구
해결 방안 마련않고 방관
市 상대 잇단 소송 제기 속
공장 불법가동 물의도

여수시 화양농공단지 한 업체에서 발생한 지독한 악취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 업체는 이와 관련 여수시에 각종 소송을 제기하면서도 마땅한 악취 방지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1일 여수시에 따르면 화양농공단지의 (주)SFC가 뿜어내는 악취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이 수년간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잇따라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여수시는 관계자는 "SFC가 농공단지 내 옛 (주)폴리플러스를 인수한 후 지난해 9월 신청한 등록변경 신청에 대해 시가 반려하자, 손해배상 청구와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고 밝혔다.

SFC가 들어선 화양농공단지는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지난 1997년 석유화학 업종 등의 입주가 가능해 지면서 심한 악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곳이다.

이 때문에 인근 주민들과 화양고 학생들은 악취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대책마련 등을 요구하는 집단 시위를 계속해 왔다.

실제 지난해 전남도의회 산단환경 특별위와 여수시, 전남도가 함께 악취유발업체 조사 결과 3곳의 업체가 배출허용 기준치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악취발생 가능성이 큰 5개 업체 검사 결과 허용기준인 희석배수 1000을 초과한 업체는 (주)SFC 6694,인제화학(주) 3000 (주) 비엔씨 1442로 판명됐다. (주)SFC는 배출기준보다 무려 6.7배 초과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단지 내 신규 화학공장 입주를 제한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중에 있다. 시는 또 화양농공단지를 지난해 12월 전남 최초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했다.

또 지난 5월부터 여수시가 의뢰한 '화양농공단지 환경오염물질 전수조사 및 주민건강 역학조사'가 내년 5월 완료되면 악취유발에 대한 시의 행정대응이 본격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SFC가 폐업한 (주)폴리플러스를 임의 경매로 인수한 후 같은 해 8월 여수시에 공장등록 변경신청을 하면서 불거졌다.

시는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은 지역 특성상 농공단지 화학공장 증설은 공익에 어긋나고, 시 입주계약을 먼저 체결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반려했다.

시가 산자부와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여수시의 법 적용이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당시 주민과 학생들의 고통 호소가 매우 컸던 만큼 관련법을 토대로 반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주)SFC는 '공장등록변경 신청건에 해당한다'며 시가 반려할 권리가 없음을 주장, 전남도에 반려처분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는 여수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지난 3월 SFC의 청구를 기각,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주)SFC는 이에 불복해 지난 4월 시를 상대로 7억 5600여만원의 민사소송을 냈다. 또 '반려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잇따라 제기했다.

이처럼 주민피해에 대한 별다른 대책마련 없이 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SFC에 대한 지역민의 분노도 높아지고 있다.

정광남 화양연합청년회장은 "악취유발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후속조치도 전혀 없다"며 "주민들의 대책요구에 법대로 하라며 뻔뻔함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주)SFC 관계자는 "신규 증설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사업장을 경매 받아 그대로 승계하는 만큼 변경신고만으로 입주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등록증이 없으니 공장 가동은 물론, 직원 임금문제와 물량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려처분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 일뿐, 기존 SFC 공장의 배출기준 초과 문제는 시의 권고대로 성실하게 이행해 기준치 이하로 낮춰 가고 있다"고 밝혔다.

(주)SFC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8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행정소송 1심에서는 원고인 SFC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은 SFC가 시를 상대로 낸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지난달 28일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주민민원이 많은 지역인 만큼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이 특별히 없는 점, SFC가 주장하는 자료의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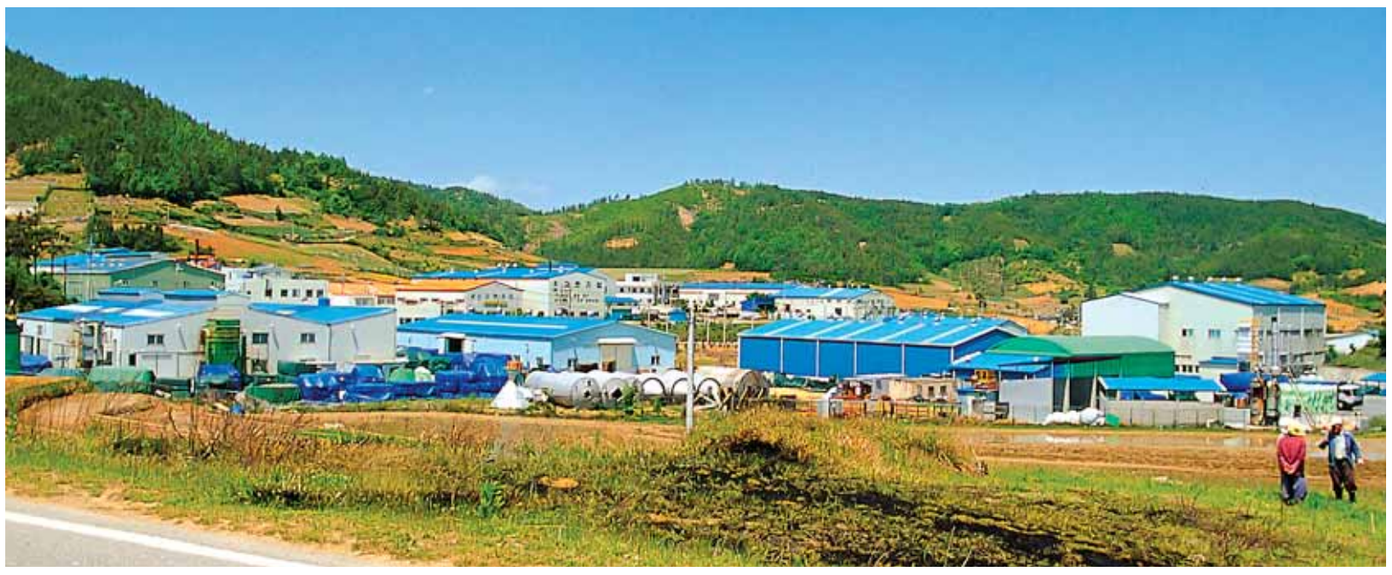
시는 행정소송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남은 재판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SFC는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옛 폴리플러스 공장을 수차례 불법 가동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화양연합청년회와 화양고 학부모회, 여수환경연합 등이 집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처음 여수시에 알렸다.

당시 여수시의 수차례 가동중지 요구에도 불구, SFC가 불법 공장 가동을 멈추지 않아 시가 경찰까지 동원해 단속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SFC는 농공단지 내 대표 악취발생 업체로 세제용 경화유, 왁스, 표면광택제, PE 왁스 등 화학제품을 전문 생산하고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kwangju.co.kr



여수 화양농공단지의 한 업체가 수년간 지독한 냄새를 유발해 지역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은 화양농공단지 전경. /여수=김창화기자 chkim@

300병상 규모 대형병원 문 열어

여수한국병원 개원…첨단 의료장비 도입
대학병원과 협진 등 고품질 서비스 제공

여수에 300 병상 규모의 대형 병원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여수 한국병원은 1일 "최고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이 신기동 옛 엑스포 병원을 인수해 '여수 한국병원'으로 변경, 지난 15일부터 과목별 진료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여수 한국병원 한승배 병원장은 "각 분야 최고 실력을 갖춘 선후배 6명이 아쉬운 지역의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의기투합했다"며 "최신시설과 전문성을 갖춘 젊은 패기를 더해 여수시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 병원장은 또 "중소도시인 여수가 대도시 수준에 결코 뒤지지 않은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수 한국병원은 전체면적 2508㎡에 지하 2층·지상 7층 규모로 본관동과 신관동, 별관동 등 환자편의 중심의 3개 병동으로 이뤄졌다. 지하에는 종합 검진센터와 물리치료 시설도 갖췄다.

현재 내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를 중심으로 진료중인 한국병원은 3일 뇌혈관 척추 통증클리닉을 추가 개설한다. 이어 8일에는 유방, 갑상선, 피부, 미용클리닉, 하지정맥류 클리닉 등 일반외과도 문을 열 예정이다.

3일 개설하는 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에 이어 내년 초에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피부비뇨기과, 이비인후과, 응급의학과 등도 개설된다.

지난 2008년 완공된 여수 한국병원은 특히 모든 병실에 1인 1모니터를 설치, TV시청은 물론 원격 진료와 상담까지 가능한 '엠오디(MOD) 스마트케어 시스템'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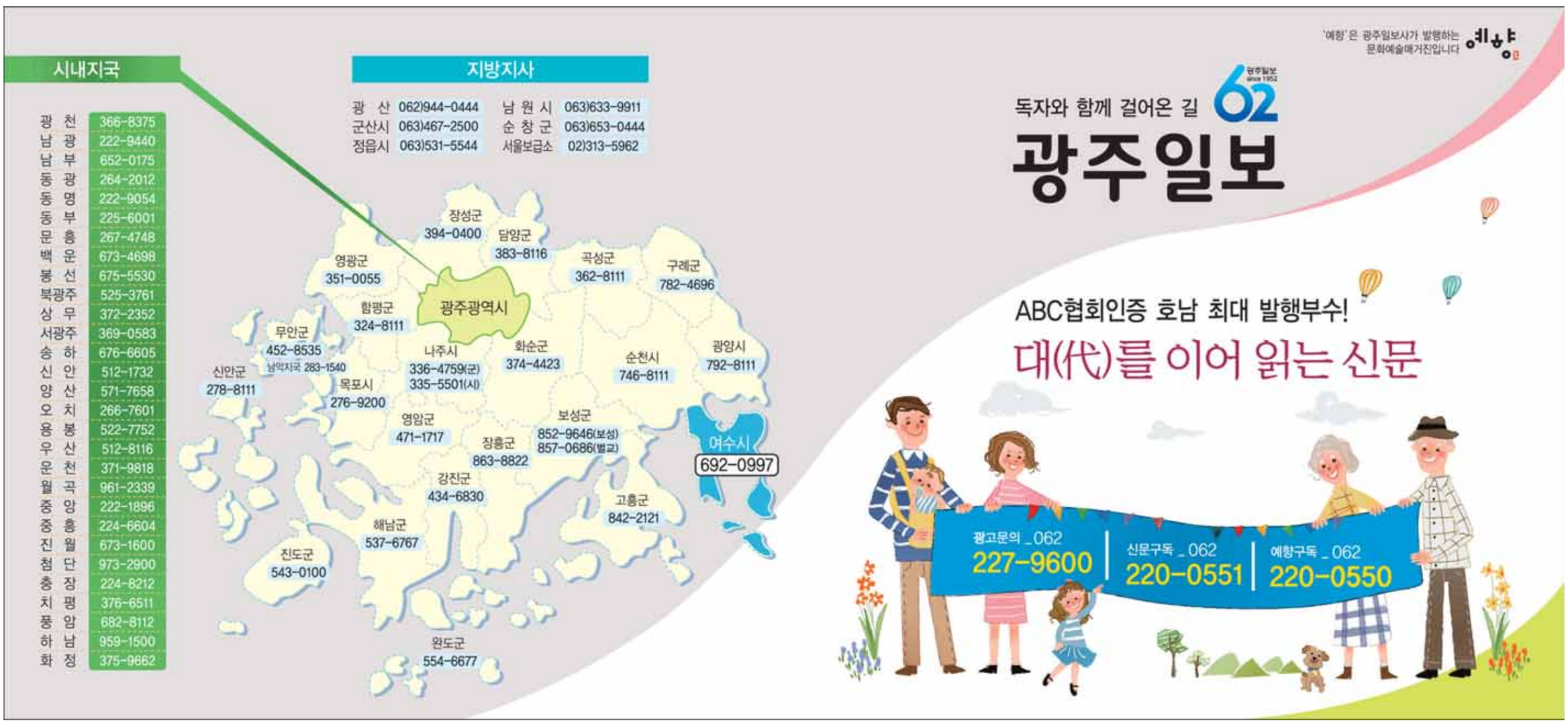
여기에 자기 공명장치(MRI)와 컴퓨터 단층촬영(CT)은 물론 정형용 교정장치(IRST), 통증치료기(Pain Scrambler), 올림푸스 연성내시경까지 갖추고 있다.

특히 올림푸스 연성내시경은 대학병원에만 있는 최첨단 장비로 여수 지역에는 여수 한국병원이 유일하다. 한국병원은 또 최첨단 의료기 구입에 50억원 상당을 투자하는 등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첨단 MRI

교정치료기

내년부터는 재활치료센터, 통합의학센터, 연구시설, 노인복지시설, 암·당뇨 치료 전문병원, 뇌심혈관센터 등을 갖춘 종합의료기관 설립 계획도 세우고 있다.

한승배 병원장은 "그동안 전문의와 장비부족으로 시간을 다투는 응급상황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게 지역 현실이었다"며 "관련과 개설과 서울 대학병원과의 협진 등 차별화와 병원 브랜드 강화, 지속적인 투자로 여수 제일의 병원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